환경

오 창 국 목사
백운교회

농활이 농민을 돕는다는 착각

농활의 계절입니다.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교회 청년들도 농활을 준비합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농활을 농민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은 기계화되었고 전문화되었습니다. 모내기와 수확은 기계가 하고 농사는 오랜 경험과 기술이 좌우합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며칠 돕는다고 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농민들은 일을 가르치고 안전을 챙기느라 손이 더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농활의 의미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활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말입니다. 흙을 만지고, 작물을 심고,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생각해 보면 농업만큼 좋은 교육도 드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생명을 배우지만 실제로 생명을 길러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과 기다림의 의미를 배웁니다. 농촌은 살아 있는 교실입니다. 농업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연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밭에서 땀 흘리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이런 경험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돌보는 경험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흙의 감촉을 느끼고, 작물이 자라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땀 흘리며 관계를 맺는 일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농업, 치유농업, 돌봄농업,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농민은 농산물만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르치고,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너무 좁게 바라봅니다. 생산량과 소득만 따질 뿐 농촌이 만들어내는 교육과 치유,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농촌은 식량만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을 생산하고 관계를 생산하며 사람다운 삶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농촌교회도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교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촌교회는 도시가 잃어버린 것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깊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찾고 관계를 찾으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농촌은 그런 갈망에 응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농촌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배우는 학교가 되고,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며, 도시인들이 창조세계를 만나는 순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교육과 치유, 돌봄의 장을 열어 간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농활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 농활은 단순한 일손 돕기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잇고, 생명의 가치를 배우며, 사람을 회복시키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농촌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 농촌교회는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농촌의 위기는 다른 모습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시 만나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 창 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하나님은 토지 사용권을 이집트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의 각 가족의 수를 헤아려 그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이, 그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게, 곧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반복하여 명령하셨다.

민 26:52-55, "52.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 33:54,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열두 명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말했다.

민 13:17-20, "17.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것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여부를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곧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땅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야만,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좁은 면적으로 주고 상대적으로 나쁜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넓은 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토지 분배를 주도한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의 이 정탐 때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각 지역별로 그 땅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요세푸스(Φλάβιος Ἰώσηπος , 37년경-100년경, 유대)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평등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며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땅을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후에,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여기에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희년에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기업인 땅을 50년마다 회복한다는 것이다. 곧 50년마다 토지평등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비록 부모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 자녀 세대는 50년마다 땅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이 세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섬기다가 '자유'를 얻은 사건이자,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토지'를 얻은 사건이다. 곧 자유와 토지를 얻은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가난한 사람이 자유와 토지를 되찾는다. 따라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_39 시내산의 위치

시내산의 위치에 관련해 지금 우리가 통설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여럿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설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일치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주후 4세기부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시나이반도에 남단에 위치한 '제벨무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는 성경의 보도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의 위치는 가데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루트는 숲 길을 따라 가데스를 거쳐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시내산으로 간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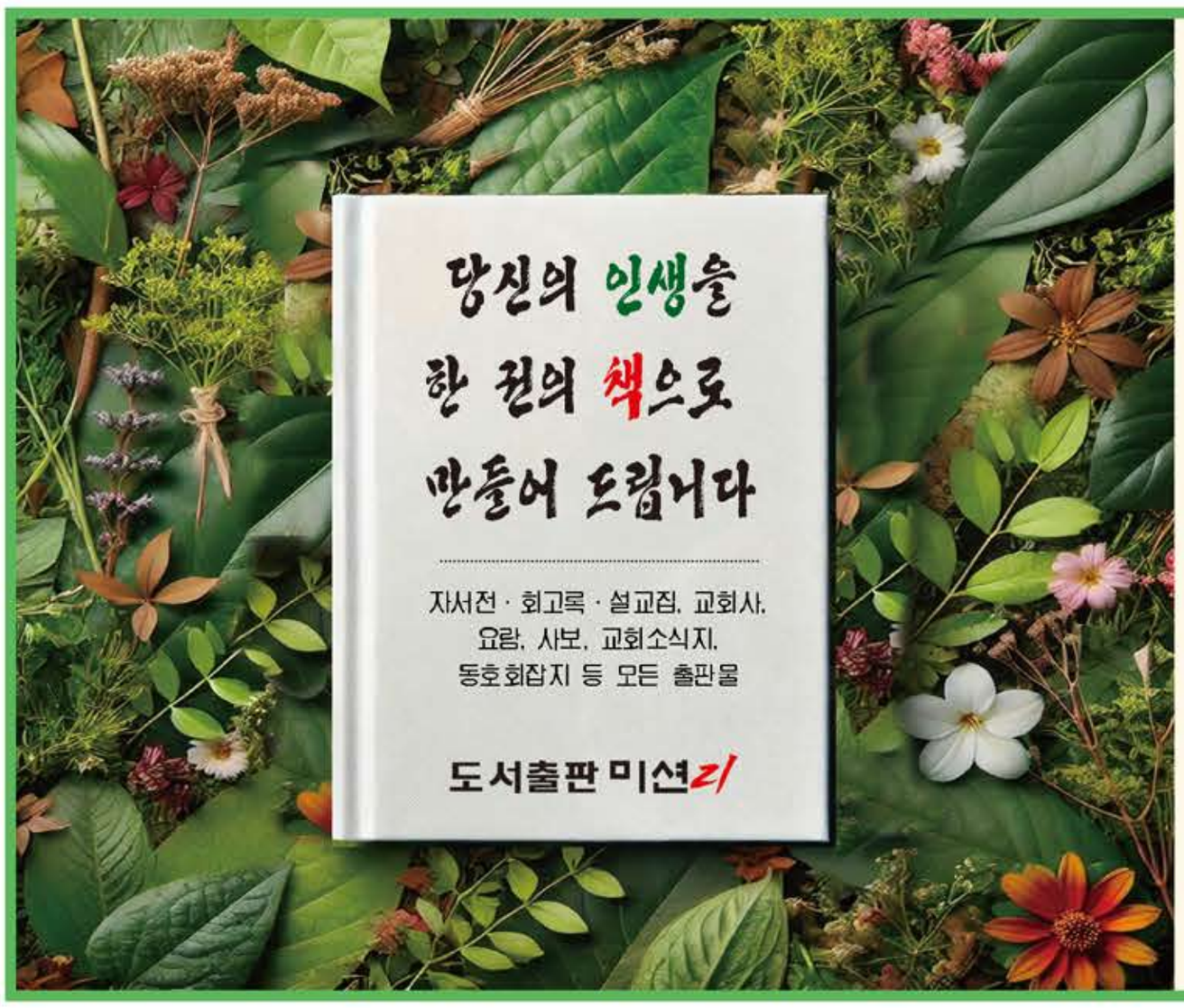
셋째,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네게브에 거주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곳이 가데스에 가까운 곳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말렉은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시나이반도까지 이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호렙에서 가데스까지 11일 걸렸다(신 1:2)는 보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할 때 거기서 가데스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비와 가축 그리고 유아와 노년을 거느리고 이동하기에 너무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비슷한 거리를 11일 만에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여 미리암 사건 때문에 한 주간을 하세롯에서 보낸 것(민12장)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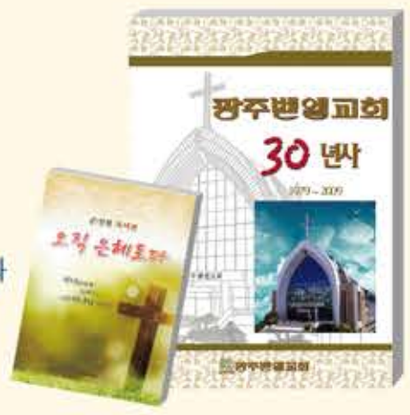
그래서 최근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장소가 제시되었습니다. 시나이반도 북서쪽, 팔레스타인 남쪽, 트랜스요르단, 북 아라비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바울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북 아라비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갈4:25). 그러나 모두 증거가 부족합니다. 최근의 고고학 증거와 본문 증거에 따르면 시내산을 가데스바네아와 엘랏 사이의 '카르콤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가 출애굽 여정에 나오는 다른 장소와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벨 무사'가 성경의 시내산과 일치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타당한 대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란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신득일 지음/기독교문사선교회)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갈피에서 툭-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등으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등 어떤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은 전문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